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전문가들에게 향후 성장, 인플레이, 금리 물어보니
- WSJ: 파월 의장, 강한 인플레이 발표 이후 금리 인하 보류 시사

[미국 금융]

- CNBC: 달러 하락에도 불구하고 5개월 반 만에 최고치 여전히 근접
- Bloomberg: 올해 1분기에 암호화폐 거래 통화로 원화가 달러를 제쳐

[미국 생활]

- CNBC: 개인이 미국에서 편안히 살려면 연봉 10불은 넘어야
- WSJ: 미국인, 연간 최대 6천8백만불 규모의 동전 버린다
- CNN Business: 대학 학자금 대출 부담, 미국인 은퇴할 때까지 고달파

[부동산]

- Bloomberg: 미국 30년 모기지율 7.13% ... 4개월 만에 최고치

[미중경제]

- WSJ: 바이든, 중국 철강에 관세 인상 추진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SK Networks, 렌터카 사업 매각하고 AI에 집중
- CNBC: UA 항공사, 2024년 항공기 인도 계획 삭감 ... 보잉 위기 탓
- CNN Business: 포드사 45만여대 리콜... 구동력 문제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Where Are Growth, Inflation and Interest Rates Headed? We Asked the Economists

전문가들에게 향후 성장, 인플레이, 금리 물어보니

-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첫 9개월 동안 경제 둔화를 예상했다. 그러나 올해 경제 전망은 이전 설문 답변보다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지의 1분기 이코노미스트들 대상 설문 결과다.
-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이들은 기업들이 가용 노동 인력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경기 둔화가 닥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수년간 연준이 금리를 2% 목표로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현재는 올해 인플레이 전망을 다소 올렸다.

- 금리와 관련해서는 금리 인하를 예상했지만 지금은 금리 상승 경로를 기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WSJ 기사

WSJ: Powell Signals Rate-Cut Delay After Run of Inflation Surprises 파월 의장, 강한 인플레이 발표 이후 금리 인하 보류 시사

- 연준의 파월 의장은, 최근 놀랄만한 인플레이 강세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당초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방침보다 더 오래 금리 인하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 그는 작년 말에 인플레이가 급격히 둔화된 이후에 최근 들어 추가적인 개선이 부족하다면서 “2% 목표로 금리가 내리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려면 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물가가 끈질기게 계속되면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말이다.

WSJ 기사

[미국 금융]

CNBC: Dollar edges down but still close to 5½-month high, Fed, Middle East in focus 달러 하락에도 불구하고 5개월 반 만에 최고치 여전히 근접

- 달러가 하락하고 있으나 오늘 수요일 현재 5년 반만에 여전히 최고치에 계속 근접한 상태에 있다. 연준은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엔화는 상대적으로 34년 만에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연준 관리들은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가이드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물러나 “금융정책은 더 오랫동안 제약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강한 미국 경제와 특히 중동의 갈등으로 달러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선호되고 있는 것이다.

CNBC 기사

Bloomberg: Korean Won Topped Dollar as Preferred Currency for Crypto Trades in First Quarter 올해 1분기에 암호화폐 거래 통화로 원화가 달러를 제쳐

- 한국에서 위험성이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화가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통화로 나타났다.
- 관련 연구소 Kaiko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누적 규모는 달러의 경우 4천4백50억달러인 반면에 원화는 그보다 많

은 4천5백60억달러를 기록했다.

- 이처럼 원화로 표시되는 암호화폐 거래량이 증가한 것은 Bithumb와 Korbit 같은 작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거래 수수료를 없애는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Bloomberg 기사

[미국 생활]

CNBC: The salary a single person needs to live comfortably in every U.S. state

개인이 미국에서 편안히 살려면 연봉 10불은 넘어야

- 편안하게 산다는 의미의 기준은 50/30/20. 주택과 유틸리티 등의 필요한 것에 50%, 임의적으로 지출하는 재량 비용에는 30%, 그밖에 저축이나 투자로 20%를 사용하는 수입을 뜻한다. 각 주마다 필요한 관련 수입은 약간 다른데, 각 주마다 편안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연봉은 아래와 같다.
- Massachusetts: \$116,022
- Hawaii: \$113,693
- California: \$113,651
- New York: \$111,738
- Washington: \$106,496

CNBC 기사

WSJ: Americans Throw Away Up to \$68 Million in Coins a Year. Here Is Where It All Ends Up.

미국인, 연간 최대 6천8백만불 규모의 동전 버린다

- Reworld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매년 6천8백만 달러 규모의 동전을 버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Reworld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폐기물 처리 업체로서, 보물찾기하듯이 동전을 찾는 일을 수행한다. 기업은 해당 활동을 시작한 이래 7년 동안 최소 1천만 달러 상당의 동전을 모았다고 밝혔다.
- 대다수 미국인에게 동전은 쓰레기와 다름없다. 버스, 세탁소, 주차 미터기 등에서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물 화폐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더, 거스름돈을 들고 다니는 것은 성가신 일이 됐다.
- Wake Forest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Robert Whaples는 “당신이 100달러 지폐, 20달러 지폐를 잃어버렸다면 그것들을 다시 찾겠지만, 1페니를 잃어버렸다면 되찾으려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SJ 기사

CNN Business: Student debt is haunting Americans from graduation to retirement

대학 학자금 대출 부담, 미국인 은퇴할 때까지 고달파

- 대학이 보다 성공적인 인생길로 가는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미국인들은 대학 학자금 대출 때문에 졸업부터 은퇴할 때가 압박을 받고 있다.
- 최근 Gallup Lumina Foundation에 따르면 미국인 학자금 대출자 4명 중 3명은 학자금 대출 때문에 인생에서 큰일, 즉 주택 구입이나 자녀 결혼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졸업 후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CNN Business 기사

[부동산]

Bloomberg: US 30-Year Mortgage Rate Rises to a Four-Month High of 7.13%

미국 30년 모기지율 7.13% ... 4개월 만에 최고치

- 지난주 미국 모기지율이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이다.
- 수요일 발표된 모기지 은행 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지난주 12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7.13%를 기록했다. 수수료와 복리 이자가 포함된 실효 이자율은 7.32%로 상승했다.
- 대출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주택 구매 활동은 안정세를 보였다.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 건수는 5% 상승했다. 이는 5주 만에 처음으로 상승한 것이다.

Bloomberg 기사

[미중 경제]

WSJ: Biden Calls for Steep Hike to Tariff on Chinese Steel

바이든, 중국 철강에 관세 인상 추진

-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관세 인상을 요구했다. 이는 대선기간 동안 중국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주의 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알리는 신호이다. 무역은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 수요일 바이든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를 방문하여 해당 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무역 관료들에게 중국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주요 관세율은 7.5%에서 25%로 세 배 이상 인상할 것을 요청했다.
- 최근 중국 수출의 급증은 관세와 관련된 바이든 행정부의 내부 논쟁을 잠재웠다. 기존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감소를 주장했던, 미 재무장관

Janet Yellen도 지난주 중국 방문에서 값싼 수출품의 쇠도가 미국 산업을 위협한다고 언급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SK Networks to Sell Car Rental Business as Focus Shifts to AI **SK Networks, 렌터카 사업 매각하고 AI에 집중**

- SK 네트워크가 렌터카 사업을 아시아 사모펀드에 매각한다. 기업은 매각 금액을 부채 감축 및 AI 사업의 성장에 활용할 예정이다.
- 화요일 SK 네트워크는 Affinity Equity Partners와 약 6억1천1백50만달러에 SK 렌터카 사업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SK 네트워크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대기업 SK 그룹의 계열사로서, 무역, 자동차 및 가전제품 렌탈, 호텔 서비스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WSJ 기사

CNBC: United Airlines slashes 2024 aircraft delivery plan as Boeing crisis leads to delays **UA 항공사, 2024년 항공기 인도 계획 삭감 ... 보잉 위기 탓**

- 화요일 유나이티드 항공이, 보잉의 항공기 지연으로 올해 항공기 예상 인도량을 줄였다. 보잉은 항공기 제조업체로서, 최근 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유나이티드는 올해 61대의 새로운 협폭동체 항공기(narrow-body planes)만 인도받을 예정이다. 이는 연초에 발표된 101대의 항공기 예상 인도량에서 줄어든 것. 당초 유나이티드는 2024년에 최대 183대의 항공기를 계약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 CEO Scott Kirby는 실적 발표에서 “우리는 제조업체가 직면한 현실을 고려하여, 항공기 계획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CNBC 기사

CNN Business: Ford recalling more than 450,000 vehicles due to potential loss of drive power **포드사 45만여대 리콜... 구동력 문제**

- 포드사는 미국에서 운행 중인 45만여대의 스포츠 유틸리티와 픽업 트럭을 리콜 중이다. 잠재적으로 배터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동력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리콜되는 차량은 2021년과 올해 사이에 만들어진 Ford Bronco Sport SUVs,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제작된 포트 Maverick 픽업 차량이다. 리콜된 차량 수는 45만6천5백65대다.

CNN Business 기사

사무공간 키우기 경쟁하던 빅테크 기업들, 지금은 '축소 지향' 임대용 오피스 매물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아

수년 전 경쟁적으로 사무공간 키우기에 나섰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은 너도나도 사무공간을 줄이고 있다.

안 그래도 타격을 받은 오피스 시장은 이런 움직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상업용 부동산 중개업체 CBRE 자료를 인용, 기술기업 임차가 많은 미국 30개 도시에서 부분 임대, 혹은 전대용으로 나온 오피스 매물이 최근 10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 1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ccsend.com